

“광주학생독립운동 복원 · 계승해야”

기념사업회, 1103번 시내버스 신설 · 사적지 복원 등 촉구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7일 “광주시와 정부가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그 정신 계승을 소홀히 해왔다”며 “이제라도 장기계획을 세워 역사를 복원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독립운동의 출발점이 광주였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3·15광주거기,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8년에 건립된 전남여고 본관을 제외하고는 광주의 나머지 유적지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며 “419와 518 시내버스는 있으나 1103번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광주시와 정부가 학생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장재성 선생을 비롯한 많은 주역들이 여전히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분들의 인물전이나 평론집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사업회는 “이러한 무관심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세로부터 ‘역

사의 죄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 분명하다”며 “100주년을 10년 앞두고 있는 만큼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해 역사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적지인 7곳과 광주 근대화기 시민사회운동의 본거지였던 흥학관에 대해서는 표지석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복원계획을 세워 100주년인 2029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할 것을 광주시와 정부에 요구했다.

보훈처가 지정한 사적지는 옛

광주역터(현 등부소방서), 광주 토교 터(현 대인시장 등문다리 입구), 4개 학교(현 광주일고 터, 현 전남여고, 전 광주농업학교 터, 전 전남사범학교 터), 김기권 문방구 터(현 금남공원) 등이다.

또 광주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를 연결하는 1103번 시내버스 신설을 요구했다.

사업회는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독립유공자 신청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교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 조사할 것 등도 요청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서구의회 폐회식서

고성 · 막말 ‘난장판’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식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막을 내렸다.

평화당 의원이 집행부 비판 견제 능력을 상실한 다수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고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등 1시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광주 서구의회는 2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포문을 김옥수 평화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폐회식에서 사전 발언권을 얻어 의회전문위원 선발 후 발령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의장이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홀대 원인이 “위법한 예산도 심의 의결해 주며 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는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라며 “의회 경시 풍조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연수 문제를 비롯해 아동 놀권리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의지 주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 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수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발언을 끊고 거세게 항의했다.



시를 차단한다 경기 안성과 경북 김천지역에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2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청미천에서 안성시 축산과 관계자들이 방역을 위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다.

무안군수 비서실장, 군 이장협의회장에게 폭행당해

무안군의 군수 비서실장이 축제 현장에서 군 이장협의회장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해당 비서실장은 지난 4월 군수 일정에서도 선거캠프 출신 주민에게 뺨을 맞는 등 잇따른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무안 주민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산 무안군수 비서실장인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무안 영드림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남양 중앙공원 축제장에서 무안군

이장협의회장인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는 폭행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축제장 주변 식당에서 관내 주요 인사들이 술을 마시던 중 김산 무안군수 참석 요청을 위해 이장협의회장 B씨가 비서실장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참석 요청에도 A실장은 “다른 일정으로 군수님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동석했던 축

제추진위원장인 C씨가 전화해 군수 참석을 다시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군수가 술 자리에 나타났다.

이에 격분한 B씨는 “나를 무시했다”며 군수와 함께 참석한 A실장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대해 A실장과 B씨 등 두 사람은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해서 드릴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뉴스1

고흥 모텔 지하서 화재 발생...100여명 대피

26일 오전 5시28분쯤 고흥군의 한 모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모텔에 연기가 차면서 이용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멈춰 16명 부상

26일 오전 9시56분쯤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복합승강장의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으로 멈춰섰다.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시민 40여명 중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7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천만원 상당 팔찌 차고 줄행랑 10대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금팔찌를 가로채 달아나다 쫓아온 팔찌 주인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1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B씨(23)가 올린 50돈짜리 금팔찌(시가 1000여만원)를 직거래로 구매하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B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거래 선불금으로 50만원을 미리 입금했고, 이날 거래현장에서 “잠깐 금팔찌를 차보겠다”고 속인 뒤 팔찌를 착용하고 갑자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나자 B씨가 이를 뒤쫓았고 A씨의 차 운전석에 몸을 반쯤 집어넣어 A씨를 붙잡았다.

운전대를 잡은 B씨와 실랑이를 하던 A씨는 B씨를 매단 채 300m가량 차를 몰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실랑이 하면서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A씨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결국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또다른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밤 도로서 멧돼지 공격받은 경찰관 부상

한밤중 광주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 경찰이 실탄 10발을 쏜 후야야 포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멧돼지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도로 한가운데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도로 가장자리로 멧돼지를 몰아 포획을 시도했다.

경찰은 100kg 상당의 암돼지를 직접 포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실탄 3발을 맞은 멧돼지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흥분, 포획을 시도하던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를 갑자기 공격했다.

흥분한 멧돼지가 A경위를 들이받고 무는 등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실탄 3발, 그리고 4발을 연달아 발사해 10발째가 돼서야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었다.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금호지구대와 풍암지구대, 풍암119안전센터 등 소방당국과 경찰 20여명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A경위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